

핵심주제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극동 전기요금 현황 점검

- 제 3회 동방경제포럼 방문객들 전자비자로 입국 가능

- 판카지 사란, '인도는 극동에서의 대리협력 강화를 희망함'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1월 20일, Zolotoi Rog

제 3회 동방경제포럼 방문객들 전자비자로 입국 가능

외국인들은 8일 단수비자를 취득하여 자유항 체제가 도입된 5개 지역중 어디로든 입국이 가능하다.

러시아 하원 국정 및 입법위원회가 국회가 자유항 비자 체제 간소화 관련법을 채택할것을 권하였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 측에서 Zolotoi Rog 신문사에 밝혔다. http://www.zrpress.ru/business/primorje_20.01.2017_81848_elektronnoj-vizoj-smogut-vospolzovatsja-gosti-tretjego-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html

2017년 1월 13일, OTV

가이다르 포럼 전문가들, '연해주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에게 중요한 국제경제소통의 장'

세션 진행자인 국제무역 및 통합 연구소장 블라디미르 살라마토프에 의하면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통합경제공간은 2016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동방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 포럼은 러시아에게 뜻깊은 자리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하고 세계 일류기업들이 함께합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이 논의되는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재로 인한 악조건에서도 모든 국가들은 공통 경제 공간을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 국가간 협력에 방해가 되는 주요 장벽들이 무엇인지 정리되었습니다.»라고 살라마토프 소장이 밝혔다. http://otvprim.ru/society/primorskij-kraj_13.01.2017_47065_eksperty-gajdarovskogo-foruma-nazvali-vef-v-primorje-odnoj-iz-glavnykh-ploschadok-mezhdunarodno-ekonomicheskogo-dialoga.html

극동 경제

2017년 1월 27일, Kommersant

사업가 알렉산드르 마무트, 루스키 섬 개발 프로젝트 제안

사업가 알렉산드르 마무트는 루스키 섬 개발을 담당할 것이라 밝혔다. 컨설팅기업 '스트렐카'는 주택대출지원청과 함께 도시환경개발 컨셉을 제안할 것이다. 루스키 섬의 390헥타르 부지를 개발해 50만 제곱미터 규모주택 신축, 강변도로 및 공원이 조성된다. 계약 총액은 40억 루블에 달한다. <http://kommersant.ru/doc/3204846>

2017년 1월 26일, TASS

판카지 사란 주러 인도 대사, '인도는 극동에서의 대리협력 강화를 희망함'

판카지 사란 대사는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와 러시아는 극동에서 공동투자자와 같은 여러 경제협력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극동개발부는 극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해 인도측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인도측은 동방경제포럼에 보다 더 활발한 참여를 추진하고 극동주제만을 논의할 러시아-인도 정상급 회담을 계획할 것이다. 극동에서 실현 가능한 여러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이미 인도와 러시아간 논의되고 있다. <http://tass.ru/opinions/interviews/3974044>

2017년 1월 20일, Rossiskaya Gazeta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극동 전기요금 현황 점검

극동의 전기요금을 3개월 안에 러시아 평균수준으로 맞추게 된다. 주민들이 납부한 요금을 연초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시 계산하게 된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과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프가 논의하였다. 또한 부총리는 다른 업무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작년에 추가로 4개 법안이 통과되어 극동의 생활수준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신규 자유항 4개가 조성되었으며 투자프로젝트 추진 메커니즘의 개선, 1헥타르 무상제공 정책 승인이 있었다. 앞으로 11개의 추가 법안이 검토될 것이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무비자 입국에 대한 법안도 포함된다. <https://rg.ru/2017/01/20/reg-dfo/putin-proveril-situaciiu-s-tarifami-na-dalnem-vostoke.html>

2017년 1월 12일, 스콜코보

'스콜코보' 극동 해양수족관을 기반으로 양식업센터 조성 계획

해당 정보는 스콜코보 재단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농업 바이오기술'과장 로만 쿨리코프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저명한 해양생물학자 세르게이 마슬렌니코프가 공개하였다고 ENV가 스콜코보 공보부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http://sk.ru/news/b/articles/archive/2017/01/02/skolkovo-planiruet-sozdat-centr-akvakultury-na-baze-dalnevostochnogo-okeanariuma.aspx>

2017년 1월 10일, Rambler News Service

러시아 노동부,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세 혜택을 지원금으로 대체할 방안 검토

러시아 노동부는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 자격을 취득한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세 혜택을 지원금으로 대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극동개발부는 현존하는 극동개발지원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https://rns.online/regions/Mintrud-prorabativaet-zamenu-lgot-po-strahovim-vznosam-dlya-rezidentov-TOR-na-subsidii-2017-01-10/>

2017년 1월 4일, OTV

콘스탄틴 세스타코프 연해주 관광국장, '연해주는 해양관광발전에 힘쓸것'

제2회 동방경제포럼 이후로 러일협력의 활성화가 관측된다. 러시아 극동지역 관광 분야의 발전은 8가지 협력 분야중 하나로 일본은 연해주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시장이다.

http://otvprim.ru/society/primorskij-kraj_04.01.2017_46853_konstantin-shestakov-primorje-delaet-stavku-na-razvitiemorskogo-turizma.html